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

2018.11.15(목) 09:30~11: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원장) 공동주최

주관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IT여성기업인협회 등
SW관련 100여개 단체

Program

- 일 시 :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9시30분~11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성호 의원(기획재정부) 공동
- 주 관 :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
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IT여성기업인협회 등 SW관련
100여개 단체

구분 /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부	9:00~9:30 (30분)	【접 수】 • 접수 및 안내물 배포 대회의실 입구
	9:30~10:00 (30분)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성호 의원(기획재정부) 위원장 조풍연 상임의장(한국SW/ICT총연합회)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축 사 김병관 의원(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인 사 말 노규성 회장(한국생산성본부)
2부	10:00~10:10 (10분)	【식전행사】 • 세레머니 사회자 정책보고서 전달식 및 사진촬영
	10:10~11:00 (50분)	【공개토론】 • 발 제(10 ') 박진국 회장(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토론회 참가자〉 - 좌장 :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 패널 • 박성동 국장(기재부 국고국) • 노경원 국장(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이상윤 국장(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 공봉석 회장(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 조현정 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김동철 수석부회장(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Contents

■ 개회사

이상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정성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3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5

■ 축하

노웅래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
김병관 국회의원(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9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1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3

■ 인사말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15
----------------	----

■ 발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17

■ 토론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25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29
김대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과장	33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	37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41
김동철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	45

개회사

국회의원 이상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유성구를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세미나’를 정성호 의원님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외 함께 해주시는 유관단체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SW사업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공 SW사업의 문제개선에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SW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전면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SW/ICT 업계는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SW 사업대가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대가 및 변경관리 개선체계, 신기술·신시장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고 정말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합니다.

4차 산업시대, SW·ICT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고용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산업 생태계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IT기술 수준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통해 한국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SW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박진국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님을 비롯 좌장을 맡아주신 손승우 교수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패널로 나와주신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장,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의 인사 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이상민

개회사

국회의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SW 사업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님,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님,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 국장님, 이상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국장님, 공보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거셉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산업과 이 모든 뼈대를 세워주는 SW(소프트웨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미래일자리 창출할 원동력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SW(소프트웨어)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SW일자리 2만개 창출전략 발표를 비롯해 클라우드 활성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SW교육 확대에 방점을 두고 SW인재 양성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고질화된 공공 SW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미래 SW산업 발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18년 만에 마련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1년째 공전상태인 관계로 SW인재 양성과 SW융합 확산이 담보 상태에 머물러있으며 SW기업과 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고급 인력이 해외와 외국계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SW산업 강국 도약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우리나라 SW산업이 10년 전이나 변한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SW사업대가는 최근 10년간 기능점수단가 약 5% 인상에 머물렀고 최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적정 사업대가 체계 반영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SW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SW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SW/ICT업계 기술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적정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파견·하도급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산업구조입니다. 실제 국내 SW/ICT 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인력문제인 만큼 서둘러 기술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산업 보호와 육성·진흥 정책을 마련해 SW산업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이뤄내야 할 시점입니다.

다행히 오늘 열린 이번 세미나가 SW/ICT사업의 정당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SW산업의 생태계 혁신을 구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관련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 토론자로 나선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기회가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SW/ICT산업이 가지고 있는 병폐를 해결하고 국가 미래 핵심 동력이 될 SW/ICT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대가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 SW/ICT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혁신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끝으로 귀한 자리를 내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정성호

개회사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조풍연



안녕하십니까. SW·ICT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과 정성호 기재위위원장님,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SW·ICT 가치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자 및 패널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SW·ICT 강국, 스마트코리아건설”,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진흥법전면개정”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과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및 “SW 저가 예산제도”, “적은 시장규모”, “간막이 소통체계” 등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SW가치보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관련 4대 협회가 자발적으로 합동TFT를 구성하여, 산업화나 정보화 시대의 저가의 사업대가나 예산, 입찰, 사업관리 등 제도개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간접비 및 물가, 급여 등은 20~30% 이상 상승했지만 SW사업대가의 기능점수단가는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10~20% 삭감되고, 발주시 사업추가, 입찰시 최저가 낙찰, 사업수행시 추가요구 등 열악한 수·발주 환경으로 꿈이 없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방산원가는 물가지 적용으로 컴퓨터운용사가 시간당 12,944원으로 SW사업대가의 기능사(14,245원) 보다도 적고, 이윤율은 5% 수준입니다.

개발SW의 지적재산권을 보안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소유하여 유지보수 조차 어렵고, 현장인재(학원주도) 부족으로 SW기술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은 80~90%로 심각합니다. SW·ICT 신기술을 개발해도 각종 지침이나 규제에 의하여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공공 정보화예산(약 4조원)은 R&D(약 20조원)보다 5배나 적은 규모이고, 유지운영·보안·HW 예산을 빼면 신규 사업은 약 1조원 이내로 신시장 창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SW사업대가를 선진화 하고, 정가 예산편성 및 집행, 방산원가를 SW사업대가로 일원화,

사업변경대가 보장, 최고가치 구매제도 도입,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상용SW 정가 예산편성 및 구매, SW진흥법 전면개정 신속통과, 개방형 소통체계 등의 생태계를 혁신해야 “4차산업혁명 확산 및 신시장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18,000개의 SW기업이 SW교육을 전담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네거티브제도로 바꾸어야 “현장인재 적기공급 및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조풍연

축사

국회의원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입니다.

「SW사업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식기반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SW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SW산업이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SW/ICT 업계는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SW사업 발주자의 과도한 과업범위 변경, 정당한 대가 미지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진흥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공공SW사업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화 사업 수행 단계에서의 근거 없는 예산 삭감, 과업범위 변경으로 인해 적정 사업대가를 보장받지 못하여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적정 사업대가 체계 마련 및 반영은 앞으로 우리 SW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전문 기술자 처우 개선에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SW 사업 대가 체계 문제가 개선된다면

SW기업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스스로 투자 및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SW산업의 사업 대가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진정한 SW 가치 보장을 실현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W산업 생태계 혁신과 SW산업 선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산업계 및 부처 국장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소프트웨어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일구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축 사

국회의원 김병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 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이상민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한국 SW·ICT 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님을 비롯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SW관련 100여개 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하면서 SW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W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SW와 ICT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청년들의 고용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SW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와 SW의 미흡한 가치 보장, SW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의 부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산업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 이스라엘 등 SW 신흥국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SW산업이 세계 주요국의 도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써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SW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SW산업의 강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전략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SW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책세미나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 산업인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SW가치 보장 실현을 위한 공론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신 박진국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회장님과 좌장을 맡으신 손승우 교수님을 비롯한 열 분의 토론회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 김병관

축 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희입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단체 대표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불가역적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안전이 보장받고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해져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입니다. 올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7개가 구글, 페이스북 등 소프트웨어 기업이며, 소프트웨어와 융합이 필수인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업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소프트웨어는 자본, 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과 상상력의 산물이며,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직무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11.6명으로 전 산업의 평균인 8.8명에 비해 상당히 높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아 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열사에서 전담하고 있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공공시장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하지만 불합리한 발주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범위가 불명확하고,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과업이 자주 변경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전략’을 의결하고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련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는 것과 동시에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의견들은 일자리위원회와 관련부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희

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한 뜻이 되어 마련한 <소프트웨어 대가혁신 일자리창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5개의 협·단체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6개월 간 숙의하여 선별해 낸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상은 많은 변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근 S&P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수가 2008년 1개에서 2018년 7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자본·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상상력의 산물로 고용효과가 높은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산업 생태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소프트웨어 업계는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계는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관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창업 및 기업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업계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어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 대가혁신 일자리창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상민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소프트웨어 협·단체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인사말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규성



안녕하십니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보장입니다.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SW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인해 SW/ICT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SW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공론화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중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이상민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추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으로, SW가 이러한 지능화 기술의 근간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자면 SW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SW 기초체력 강화, 국가사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 인력 양성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SW/ICT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보장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SW생태계에서는 ICT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감축되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발주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으로 이어지며 많은 예산이 삭감됩니다. 과업 내용은 그대로지만, 실제 수행단계에 이르면 제대로 된 가치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원활한 과업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품질 담보가 어렵고 기술 축적도 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SW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SW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보장, SW대가 혁신이 전제될 때 비로소 SW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시너지를 양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SW산업의 제대로 된 가치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하나로 뜻을 모아 우리 SW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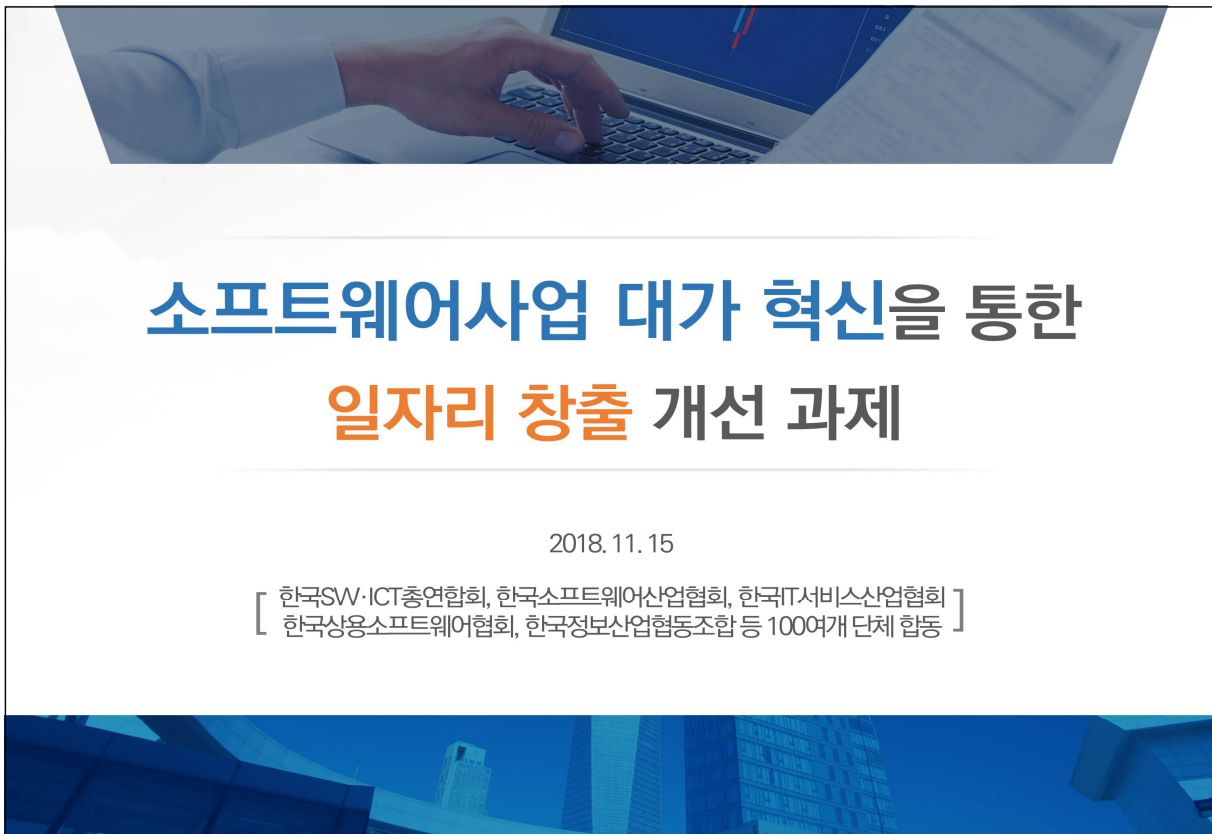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 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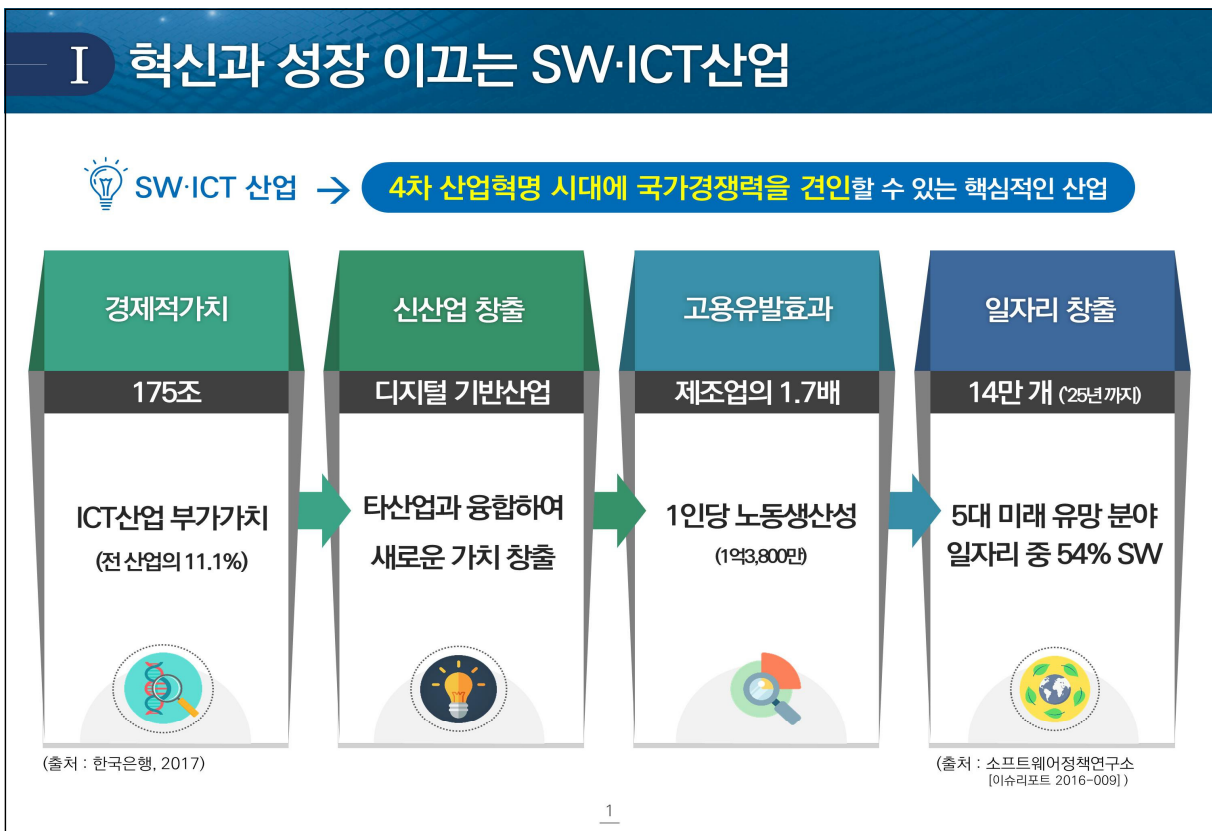
박진국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2018. 11. 15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100여개 단체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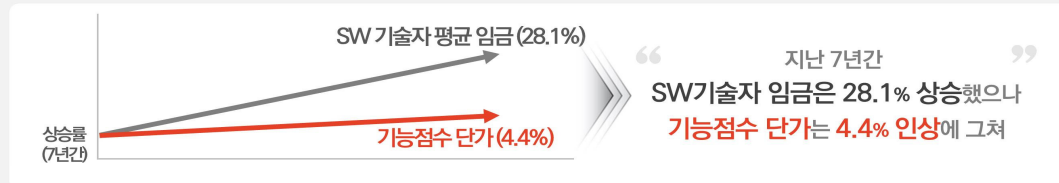
II 그러나 현실은... (1/2)

열악한 SW 예산과 대가

SW 산업 예산



SW 사업 대가



2

II 그러나 현실은... (2/2)

SW 산업은?

3D 업종 !

SW 산업 구조적 문제

- ✓ 불명확한 요구사항
- ✓ 과도한 가격할인 요구
- ✓ 대가 없는 과업범위 증가
- ✓ 일방적인 예산삭감

×

SW 기업
수익 최저 수준

노동량 多
低 임금

IT인력
대우 안해주는 나라

청년들이 SW 산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여 기피

연결고리를
끊어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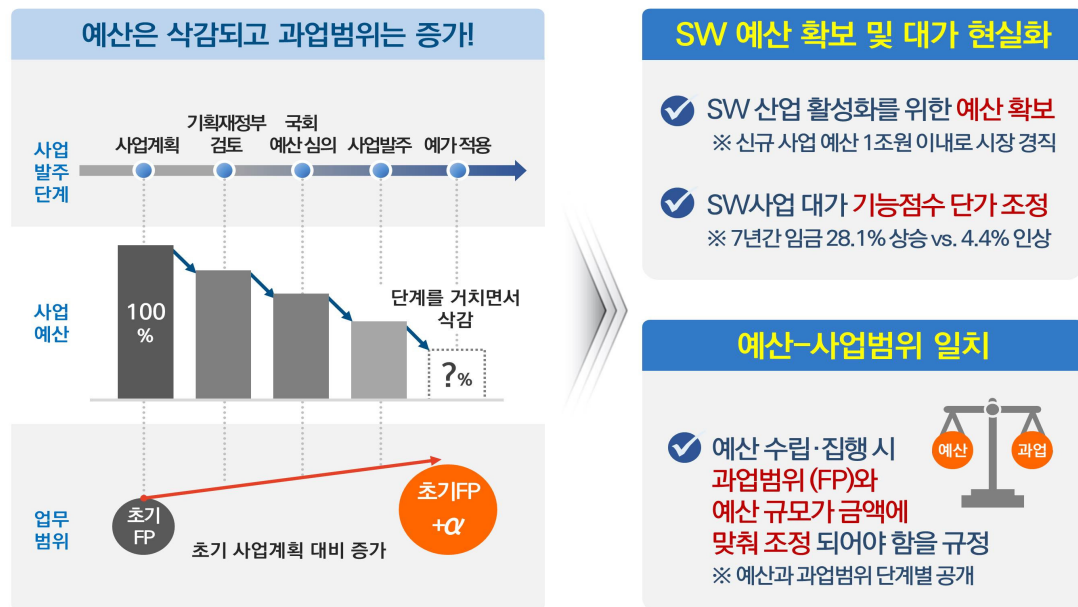
Ⅲ 이렇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4

Ⅲ-1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기획·예산 수립단계



5

Ⅲ-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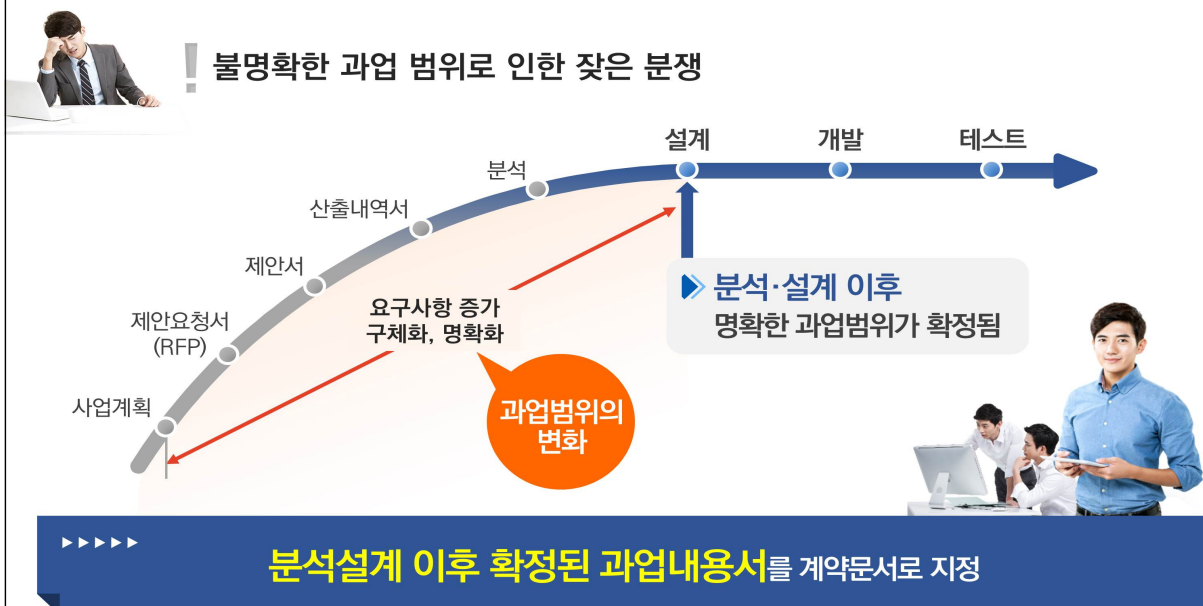
제안 · 입찰 단계



6

Ⅲ-3 과업기준 명확화

사업 수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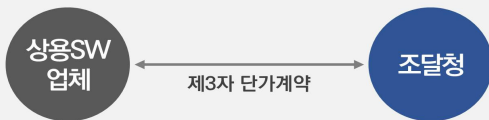
7

III-4 상용소프트웨어 정당대가 산정

전 단계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및 조달청 제3자 단가 예산편성



- ✓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 ✓ 예산편성 시 제3자 단가 금액 적용
- ✓ 분리 발주 SW 통합 비용 반영

상용SW 유지관리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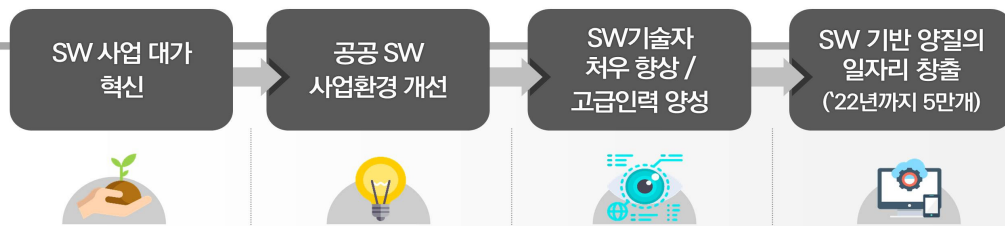


- ✓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을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 권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

8

IV 기대효과

“ SW사업 대가 혁신을 기반으로 SW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



※ 정부 목표치의 2배 (정부 목표 : 2.4만개)

▶▶▶▶▶

SW 가치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9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 01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박성동

MEMO

MEMO

토론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곽 병 진

MEMO

MEMO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 론

03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과장

김 대 수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 현황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과장 김대수

□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요건 강화

-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분리발주 적용 제외(일괄발주)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16. 1~)

- (사전검토 대상사업) 5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사업 중 품목별 5천만원 이상 상용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는 사업

* 분리발주 예외 : 현저한 비용상승,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한 경우 등

- (분리발주 대상 SW 검토) 발주기관은 조달계약 요청 이전에 제안요청서,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가격산출내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검토 후 통보

* 조달청 단가계약 SW는 5천만원 미만 SW도 분리발주로 검토

- 사전검토 결과

(17년) 153개 사업 563개 품목 → (18년10월) 168개 사업 705개 품목

□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확대

- 품질인증(GS, NEP, NET)을 받은 상용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단가인하 관행을 근절하여 공공정보화 생태계 개선

- 수요기관에는 자유롭고 편리한 물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업체에게는 정부조달 판로개척의 기회를 부여
-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시 우선구매 대상으로 안정적 판로확보

○ 연도별 나라장터 등록현황(누계)

(15년)359건 → (16년)460건 → (17년)612건 → (18년10월)742건

○ 유지관리 상품도 쇼핑몰 등록으로 적정 유지관리 대가 보장

- (가격결정) 업체가 제시한 서비스 내용을 표준점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점수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요율로 결정

* SW산업협회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조달청은 18년 유지관리 요율 중간등급 구간을 15%까지 상향(16년 13% → 17년 14%)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 정보화 사업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

○ 가격평가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제안서 평가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90점으로 명시(정보화 사업)하고, 기술평가점수 산출시 강제보정 방식*을 폐지하여 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였음

*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순위 점수격차를 5% 이내로 강제조정하는 방식

→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로 가격점수에 의해 순위가 뒤바뀌는 비율은 약 10%에서 6% 수준으로 줄었음

○ 5천만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 마련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40점 미만, 40~60점 미만, 60점 이상의 점수를 반영할 수 있는 3가지 유형 제시

토 론
—
04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

공 봉 석

소프트웨어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2018.11.15.(목)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 공봉석

□ 정부의 SW사업 정당대가 보장으로 사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SW/ICT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성장이 기대되는 범용기술 중 하나로서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변혁의 핵심 기술
 - 적정 사업대가 지급을 통한 SW사업 선진화 방안을 구축·확산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 필요
- 지식기반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SW업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
 - 그러나,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인재들의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 SW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 SW 정당대가 등 요구사항 명확화로 합리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점수(FP)를 예측 및 편성하거나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건의안) 낙찰 차액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 보장

- SW 대가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요구사항 명확화 및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SW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요구사항의 명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적정대가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적정대가 지급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발생하는 낙찰 차액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공개입찰 사업의 경우 발주금액의 80~95%사이에 계약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통상 사업별 낙찰 차액이 10%내외로 발생하고 있음.
 - 정보화 예산 낙찰 차액의 경우 **당초 동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관련 사업으로의 추가 예산집행이 가능해야하나.** 현재의 예산시스템으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어있음.(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 기재부)

*** 2018년 예산 및 기금 운영 지침(기획재정부)**

10. 정보화 관련 예산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재 진행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제 61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과업추가 및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제 61조)**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범위를 심의·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심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 론

0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 현 정

MEMO

MEMO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 론

06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

김 동 철

상용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 김동철

I. 기획재정부 201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8.4)

(현행) : 상용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문제점) ① 상기 조항은, 상용SW 구입 검토시 유사기능의 공개SW가 있다면 공개SW를 우선 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성이 큼

- 단순 초기 투자 비용만이 아니라 도입후의 운영이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는 TCO 측면에서 접근필요

※ TCO : 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

- 공개SW는 매년 기술지원 비용 필요
- 보안의 취약성

② 발주자들에게 공개SW를 도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줌으로써 상용SW 구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③ 공개SW, 상용SW 중 어느쪽의 SW를 선택해야 하는가?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의 SW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SW에 경도된 규정

(제안) 본 규정 삭제

II. 상용SW 유지관리비

(현행) 과기정통부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15% 권고

(문제점) ① 기재부에서 편성한 예산액과 과기부 권고사항 금액 괴리

② 외산대비 국산 제품 상대적 불이익 발생

③ SW 유지보수의 경우 통합발주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외산 SW와 국산 SW간 유지보수율 차이 발생

(제안) 예산 단계에서 유지관리요율 15% 예산 편성, 유지관리계약을 SW별로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체결 권고

III. 국가 정보화 정책 전환 방향 : 포괄적 국산SW 장려로 정책적 방향성 전환 필요

(현행) 정보화 예산 절감, 공개 SW 장려, SI(System Integration) 중심

(문제점) ① SW 공급 가격 인하 요구로 국산 SW 업체들의 수익성 저하

②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국산 SW 경쟁력 저하

③ 기술과 표준보다는 용역서비스 중심의 SW 생태계 형성

(제안) SI 방식의 직접 구축 보다는 패키지형 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형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